

‘젊은 피’들의 대결 … 이반 감독의 첫 홈장 데뷔전 무승부

—림태준, 현지건 등 U-21 선수들 맹활약



팀의 선제골인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공격수로 활약한 현지건

기대가 많았던 이반 감독의 홈장 데뷔전이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두번이나 앞섰다가 두번이나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6월 16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광주구락부팀(이하 ‘광주팀’)과 2대 2로 비으며 홈장 무승부에 그쳤다.

청도 원정에서 신고식을 치르고 홈장으로 돌아온 이반 감독은 지난 경기와는 다른 3-4-3 전형으로 시작했다. 최전방에 현지건 - 로난 - 림태준을 내세워 쓰리톱 체제를 구축했고 김태연, 천창걸, 리호걸, 한광휘가 중원을 구성했으며 서계조, 왕봉, 허문광이 수비라인을 지켰다. 키퍼 장갑은 리아남이 착용했다.

지난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던 이반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U-21 선수인 현지건, 림태준과 허문광을 선발로 내세웠다. 또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활약했던 림태준과 올 시즌 후보로 교체 투입되어 자기 몫을 다하던 현지건이 로난과 짝꿍을 이뤄 공격선을 책임지며 전술 변화를 꾀했다.

한편 갑급리그 16개 팀중 평균연령이 가장 어린팀답게 광주팀 역시 5명

의 U-21 선수가 나란히 선발로 나섰다.

‘젊은 피’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두 팀은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3분 만에 현지건이 문전까지 돌파해 슈팅을 때리며 상대팀 골문을 위협했다. 공격수로 나선 현지건의 활약이 눈에 띈 가운데 9분경에 재차 광주팀 박스 안으로 질주했다. 상대 수비수가 몸을 날리는 반칙으로 막았고 박스 안에서 넘어진 현지건은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키퍼로 나선 로난이 골을 성

사시키며 연변팀은 이른 시간에 1대 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10분도 안된 18분경 프리킥 기회를 가진 광주팀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광주팀은 기세가 올랐다. 라인을 중앙선까지 끌어올리더니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연변팀 수비라인을 괴롭혔다. 동점골을 완성한 뒤 20분 사이에 광주팀은 30여 차례에 달하는 위험공격과 6차나 되



이날 경기의 추가골을 터뜨린 림태준, 2경기 연속 골 사냥에 성공.

는 코너킥을 쏘아냈다.

반면 광주팀의 공세에 맞서 연변팀은 수비라인을 내리고 방어벽을 단단히 쌓아올려 뒤공간을 잠그는 한편 역습을 노렸다.

선수비 - 후역습이 빛을 발한 건 40분경이었다. 왼쪽 측면에서 김태연이 문전으로 크로스를 넘겼고 박스 안에 침투해있던 림태준이 살짝 발을 갖다댔다. 방향을 조금 틀어준 공이 광주팀 키퍼의 높이 들어올린 두 손 위로 넘어가며 골망이 시원하게 흔들렸다.

지난 경기에 이어 연속골을 터뜨린 림태준의 추가골에 힘입어 연변팀은 전반전을 2대 1로 마쳤다.

후반전에 연변팀은 허문광을 루루 카이저로 교체하며 시작했다. 몰려설 수 없는 두 팀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후반 초반부터 불꽃이 튀었다.

연변팀은 랑 측면을 활용해 공격 활로를 모색하며 전진 패스를 시도했다. 두 팀 서로 문전에서 아슬아슬 공격포인트를 뺏아내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맛볼을 놓던 랑팀의 공격이 차츰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두 팀은 서로 상대의 빈틈을 노렸다.

그러다 20여분간 이어지던 후반 대치 상황이 깨진 건 66분경, 광주팀의 용병 베냐로씨가 때린 박스 밖 먼거리 슛이 키퍼 리아남을 넘어 재차 우리 팀의 골망을 갈랐다.

두번째 원점 상황이 된 연변팀은 왕박호와 리룡으로 부상 증세를 보인 현지건과 리호걸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교체 카드가 나온 지 10분 만인 80분경, 연변팀은 재차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장 천창걸을 빼고 U-21 선수 류박을 투입시켰다.

81분경부터 연변팀은 세번의 코너킥을 연속 만들어내며 추가골을 향한 노력을 가했다. 뒤이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이 다시 코너킥으로 연결되며 연변팀은 터질 듯 말 듯 광주팀 문전에서 긴장감을 한껏 조성했다.

추가시간이 5분 주어져서 광주팀의 시간끌기용 ‘잔패’가 나오기도 했지만 연변팀은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연변팀은 홈장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점 1점을 챙겼다.

한편 연변팀은 6월 30일에 불산남 사팀과 원정경기를 펼친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특목 관전평」

연변팀다운, 연변팀만의 색깔 찾기



이반 감독이 보여주려는 축구가 무엇인지 선보일 수 있는 무대였다. 부임하고 첫 경기를 청도 원정에서 치르고 홈으로 돌아온 이반 감독은 16일에 광주구락부팀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첫 홈장 데뷔전을 치렀다.

대 청도홍사팀 경기에서 축구 스타일을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며 기대감을 올렸던 이반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U-21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해 젊은이의 패기로 팀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확실히 이날 선발로 나선 U-21 선수 현지건과 림태준은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추가골을 터뜨리는 등 운동장을 누비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감독의 믿음에도 보답했다. 이번 시즌 후보로 출전해 자기 몫을 다하며 가능성을 입증한 현지건이 이날 선발로 나서 측면에서 활활 날았다.

주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림태준 또한 연속 2경기째 선발로 출전해 2경기 연속 골까지 터뜨리며 활약했다. 이날 상대팀인 광주팀은 갑급리그 16개 팀중 평균연령이 가장 어린 팀이다. 혈기왕성한 광주팀은 매섭게 몰아붙이며 연변팀의 수비라인을 괴롭혔다. 연변팀은 두번이나 앞서다가 두번이나 동점골을 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후 기술통계표를 살펴보면 광주팀은 슈팅이 19회에 달한다. 위험공격 차수도 전반 경기 내내 61회를 기록해 연변팀의 슈팅 10회와 위험공격 차수 35회보다 앞섰다. 광주팀이 무서운 공격력을 보였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광주팀의 유효슈팅이 3회에 그치며 연변팀의 유효슈팅 4회보다 적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였다는 방증이 된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문전에서 수차례 연출되었으니 말이다.

한편으로 젊은 피 대결에서 광주팀은 세명의 용병이 출전했고 연변팀은 이보가 결장하는 등 한명의 용병만 뛰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날 경기에서 연변팀은 선수비—후역습으로 수비에 집중하는 동시에 역습 상황에서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경기 양상을 보였다. 전술 변화를 꾀했지만, 그러나 수비 실수가 나오는데 등 미숙한 부분도 보여지며 이반 감독 또한 경기후 소식공개회에서 “앞으로 훈련을 통해 진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홈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돌아오는 6월 30일에 다시 불산남사팀과 원정경기를 펼친다. 두주간의 휴식이 동안 이반 감독이 보여주려는 축구 스타일이 얼마나 팀에 색깔을 입혀줄지가 팬들이 주목하는 바이다. 이거도 저도 연변팀다운, 연변팀만의 팀 색깔을 보여주는 경기를 팬들은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이반 감독 “우리는 앞으로 더 진보할 것이다”

6월 16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펼쳐진 2024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 14라운드 홈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광주구락부팀(이하 ‘광주팀’)과 2대 2로 비었다.

경기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변팀 이반 감독은 “우리는 오늘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고 질 수도 있었다. 전반 경기는 랑팀에 있어 공평했다.”

/ 김파기자

중국여자배구팀 빠리올림픽 출전권 획득

중국여자배구팀이 14일에 열린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중국 항항역 경기에서 독일을 3대 0으로 격파하고 빠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경기가 끝난 뒤 항항체육관의 화성기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세계 6위의 중국팀이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배구연맹이 중국팀을 위해 경축식을 열고 전제 선수들에게 ‘빠리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했다. 여자배구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남긴 뒤 모자를 공중으로 던지며 힘들게 얻은 승리를 축하했다.

중국팀 감독 채빈은 기자에게 “중

국여자배구팀은 종래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데 대의의심을 품은 적이 없으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것은 단지 첫번째 목표일 뿐으로 팀은 각 방면의 협력과 기전술의 조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빈은 “빠리올림픽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한경기 한경기 싸우며 중국여자배구팀의 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팀은 15일에 세계 1위 토이기에팀에 3대 2 역전승을 거두고 16일에는 3대 0으로 폴스까팀을 전승하면서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중국 항항역 경기에서 4전 4승을 이룩했다.

/ 신화사

파워 넘치는 패기와 열정! 도문시 ‘도강컵’ 중국민족씨름대회 개최



6월 12일, 도문시문화화리조트엘레비존방송밋관광국(체육국), 도문시 석현진 당위, 정부에서 주최한 2024년 도문시 ‘도강컵’(图强杯) 중국민족씨름대회가 도문시 수남촌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대회는 소학교, 중학교와 성인 등 8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연변 8개 현, 시에서 온 근 1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경기중 선수들

은 두터운 씨름 기본기와 능란한 기량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연한 몸놀림과 정확한 판단으로 한번 또 한번 상대 선수를 땅에 넘어뜨리며 현장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 길림일보